



정교회주보

제2483호

2024.07.28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남서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릴라 수도원(사진)은 927년 설립되었다. 14세기 말 오스만 침공으로 수도원은 폐허가 되었지만 15세기 중반에 재건되었다. 11~19세기의 필사본 250여 권과 9,000여 권의 인쇄본, 악보, 판화 등이 보존되어 있다.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



마태오 제5주일
성 브로코로스, 성 티몬,
성 니카노로스 (70인 사도)
(제4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10,1~10 ..(봉) 154
 - 복음경 : 마태오 8,28~9,1 11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배반의 입맞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넘겨 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면서 차례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마태오 26,22)

내 자신이 타락했던 경험은 틀림없이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새로 죄지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 떨며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또 배신을 하게 될까요? 다음 배신자는 저인가요?” 마음속의 찢림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넘겨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외로움’에 대하여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소 2,19)

사도 바울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가족에 속하며 성인들은 여러분과 같은 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외로움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위안과 위로가 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남들에게 주는 사랑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남들에게 거절당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많은 경우에, 같은 집에 사는 식구들이 저마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혼자입니다.

인간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불행하게도 마약과 술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안에 하느님이 오셔서 머무실 때만 극복됩니다.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머무시면 우리는 결코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친교와 소통을 나누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영혼을 파괴하는 고독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 고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과 자기비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집니다.

나.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 하느님께로 열립니다.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나서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세상의 문제들을 꺼안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키릴로스 성인은 “그리스도는 일치의 연결 고리”이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립을 제거해주시고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없애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에페소 2,19)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적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 위대한 작품, 위대한 창조물은 고독 속에서 배양되고 성숙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고통스러운 고립 속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기심을 없애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 그들을 안아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다가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네 단계의 행복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나 이지리아의 억만장자인 페미 오테돌라 씨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오테돌라 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네 단계의 행복을 지나왔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단계의 행복은 부와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제가 갈망하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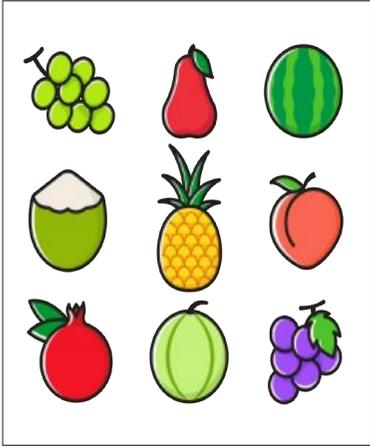
둘째 단계의 행복은 값진 보석 등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계의 행복이 주는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값진 물건들에서 나는 빛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단계의 행복은 아주 큰 예술품들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디젤 공금회사의 9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선박의 소유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넷째 단계의 행복은 한 친구가 거의 200명

이나 되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휠체어를 사달라고 요청해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직접 제 손으로 아이들에게 휠체어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이상하고 낮은 행복감이 불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모두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재미있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또한 제 내면에서 진짜로 기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한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다리를 슬그머니 빼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제 다리를 꼭 붙잡은 채로 제 얼굴을 바라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니?’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대답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발견할 때, 당신을 알아보고는 다시 한번 더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제가 제 인생에서 느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알 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내일부터 대교구 주일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준비를 잘해서 유익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나머지 신자 여러분께서는 봉사와 기도를 통해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일정 : 7/29(월)-8/1(목) : 중고등학생 (참가비 9만원)

8/1(목)-6(화) : 초등학생 (참가비 15만원)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안내

다음주 화요일(8월 6일) 축일을 맞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처럼 축일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성당에서는 버스 대절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꼭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 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목) 성모 안식 축일 맛이를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을 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성모 소기원 의식'을 드립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큰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가 허용됩니다.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22일),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네 명의 예비자가 세례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례자: 케가이 드미트리, 이 세르게이, 박 드미트리, 구 다니일(유아)

영성의 샘터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

언젠가 다니엘 사부와 그의 제자가 광야에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걸기만 했다. 긴 여정에 지친 젊은 제자가 불만 어린 목소리로 사부에게 말했다.

“언제쯤 우리의 누추한 오두막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언제나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부가 대답했다.

“형제여, 우리가 이곳에서 하느님을 뵈는 것을 누가 방해하겠는가? 우리가 오두막에 있든 오두막 밖에 있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주신다네.”